

송강호 “봉준호 감독에 영광을”

배우 송강호가 올해 제72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배우로는 처음으로 ‘엑셀런스 어워드’ (Excellence Award)를 받았다.

엑셀런스 어워드는 2004년부터 독창적이고 뛰어난 재능으로 영화 세계를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한 배우에게 헌정하는 상으로 수잔 서랜던, 존 말코비치, 이자벨 위페르, 윌리엄 비노슈, 에드워드 노턴, 이선 호크 등이 받았지만, 아시아 배우로는 송강호가 첫 수상자다.



로카르노 영화제 ‘엑셀런스 어워드’ 수상 아시아 배우 최초... “감사와 존경 전한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카르노의 팔레스포 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송강호는 “전통과 유서가 깊은 아름다운 로카르노에서 의미 있고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특히 이 자리는 그동안 존경하는 세계 최고 배우들의 자취가 남겨져 있는 자리라 더욱 감격스럽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이 특별한 시간이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때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수많은 예술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감동의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은 함께 영화제에 초청받은 봉준호 감독도 참석했다.

송강호는 “배우로서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 과분하게 영광스러운 과정이었

다. 그 과정에 한국의 위대한 예술가들이 계신다. 이창동, 박찬욱, 김지운 감독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여기 이 자리까지 같이해준 나의 영원한 동지이자 친구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위대한 예술가 봉준호 감독님에게 이 트로피의 영광을 바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봉 감독도 “함께 한 네 편의 영화들 모

두 송강호가 없었다면 완성할 수 없었던 영화들이라 너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송강호의 엑셀런스 어워드 수상 전에는 빌리 힌스턴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배우 송강호에 대해 짧게 소개하고 그의 대표작인 ‘밀양’, ‘복수는 나의 것’, ‘반칙왕’, ‘괴물’, ‘설국열차’를 편집한 3분 짜리 영상이 상영됐다. /연합뉴스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할 것”

오달수 ‘미투 논란’ 무혐의... 독립영화로 복귀

배우 오달수가 독립영화로 복귀한다. 지난해 2월 ‘미투 논란’에 휩싸여 활동을 중단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오달수는 13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 많이 떨리며, 두려운 마음으로 몇 자 올린다”며 “곧 촬영이 진행될 독립영화 ‘요시찰’에 출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달수는 “지난해 초 고향으로 내려가 서저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지냈고, 그러는 동안 경찰 내사는 종료됐다”며 “지난해 있었던 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 모든 것도 제 부부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가 비록 결점 많고 허술한 인간이긴 하지만 연기를 하고 작품을 만들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묵묵히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오달수는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거듭 죄송하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달수는 지난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 추가 폭로가 나오자 공식으로 사과한 뒤 고향 부산에서 집거해왔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경찰청에서 내사 종결되자 복귀를 결정했다.

오달수의 복귀작 ‘요시찰’은 독립 단편영화 ‘뚝갈다’를 연출한 김성환 감독 작품으로, 감독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일을 그린다. 촬영은 다음 달 시작한다.

오달수가 복귀함에 따라 그가 출연한 미개봉 영화들도 관객을 만날지 주목된다.

그는 영화 ‘컨트롤’ (한장혁 감독),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김지훈 감독),



독, ‘이웃사촌’ (이환경 감독) 세 작품에서 주연을 맡아 촬영을 마쳤으나 ‘미투 논란’에 휩싸이면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

그가 조연으로 출연한 ‘신과함께-인과 연’ (신과함께2’)은 다른 배우를 내세워 재촬영해 개봉했다. ‘이웃사촌’ 배급을 맡은 워너브러더스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개봉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유미, DHC 모델 활동 중단

협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모델인 배우 정유미 측이 DHC에 초상권 사용 철회와 모델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유미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공식입장에서 “DHC 본사 측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DHC코리아와 정유미의

뷰티 모델 계약을 지난해 체결했다. 하지만 이번 DHC 본사 측 발언에 중대한 심각성을 느껴 정유미의 초상권 사용 철회와 모델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고 했다.

또, DHC와의 재계약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자회사인 ‘DHC테레비’는 최근 협한 발언이 담긴

유튜브 콘텐츠인 ‘진상 도로노론 뉴스’를 내보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출연자들이 위안부상을 “예술성이 없다. 내가 현대미술이라고 소개하며 성기를 내보여도 괜찮은 것인가”라며 평가하고, “조선정(과거 조선인을 비하하는 표현)은 한문을 문자화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혐오성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



BTS ‘틴 초이스 어워즈’ 3년 연속 수상

그들 방탄소년단이 미국 방송사 폭스가 주관하는 ‘틴 초이스 어워즈 2019’ (Teen Choice Awards 2019)에서 3년 연속 상을 받았다.

12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허모사 비치에서 열린 ‘틴 초이스 어워즈’에서 ‘초이스 클래식 레이션’, ‘초이스 서머 투어’, ‘초이스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초이스 팬담’ 부문 등 4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올해 시상식 후보에 오른 뮤지션 가운데 최다 수상이다.

방탄소년단은 ‘초이스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부문에서 2017년 이후 3년 연속, ‘초이스 팬담’ 부문에서 팬클럽 아이미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또 올해 새롭게 수상한 ‘초이스 서머 투어’ 부문에선 5월부터 진행 중인 스타디움 투어 ‘러브 유어셀프 : 스피크 유어셀프’ (LOVE YOURSELF: SPEAK YOURSELF)로 아리아나

그랜데, 빌리 아일리시, 션 멘데스 등을 제치고 선정됐다.

‘초이스 클래식 레이션’ 부문에서도 할시가 피쳐링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로 릴 나스 엑스와 에드 시런·저스틴 비버 등 쟁쟁한 후보를 물리쳤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틴 초이스 어워즈’는 13~19세 틴에이지들이 음악, 영화, 방송,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한 아티스트, 배우, 스포츠 스타들을 직접 뽑는 시상식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TV					
	KBS1	KBS2	MBC	KBC-SBS	E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00 한국기행(재) 20 세계테마기행
7	50 인간극장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00 로보카 폴리 15 꼬마버스 타요(재)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00 당동댕 유치원 10 두근두근 방방 45 호기심딱지 시즌4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00 마자와 곶 40 아빠 찾아 삼만리
10	00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40 자구촌 뉴스	45 신입사관 구해령(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11	00 제2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00 저스티스(재)		00 애니갤러리 30 안녕 자두야 언더 더씨	20 세계테마기행(재)
12	00 KBS 뉴스12		00 12 MBC 뉴스 20 신입사관 구해령(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00 EBS 정오뉴스 10 EBS 초대석(재)
1	00 제16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	00 청소년 공감 콘서트 온드림스쿨(재)	30 헬로키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지식채널e 40 빅뱅(재)
2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0 꼬마버스 타요(재) 45 로보카 폴리(재)
3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에어로버(재) 50 빠샤 메가드		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30 뽀롱뽀롱 뽀로로 45 출동! 슈퍼윙스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SBS 스페셜	15 세미와 매직큐브 30 당동댕 유치원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내 친구는 빅파이프 30 배틀 트립	05 5 MBC 뉴스 25 좌충우돌 만국 유망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00 EBS 뉴스 20 명탐정 피트 30 페파 피그(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00 특!특! 보니 하니 25 마주의 어드벤처 45 우리 몸 X파일
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큐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TV블로그 썬지락	00 제니니오 스티븐의 모험 30 생방송 판다다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립하는 남자들	55 신입사관 구해령	00 SBS 8 뉴스 35 KBC 8뉴스 55 영재발굴단	00 갤럭시 프로젝트 30 아기 동물 귀여워 40 세계테마기행
9	00 KBS 뉴스 9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라임
10	00 시사토론 '10' 55 오늘밤 김제동	00 저스티스	05 살맛나는 세상	00 닥터 탐정	45 극한직업
11	35 슈퍼 40 KBS 스페셜(재)	10 썸바이벌 1+1	05 라디오스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55 EBS 초대석
12	35 KBS 뉴스 45 인간극장 스페셜(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TV는 사랑을 싣고	40 스포츠 다이어리 55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45 지식채널e 50 글로벌 특선다큐

오늘의 운세	김도환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8월 14일 (음력 7월 14일)	
子	48년생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60년생 첫 인상을 너무 믿지 말라. 72년생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84년생 공격이 아닌 수비에 집중하라.	午	42년생 숨어서 내 재산을 탐내는 자를 조심하라. 54년생 시적이 반이다. 66년생 뎀은 가볍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 78년생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丑	49년생 하나를 내어주고 둘을 얻는 운세이다. 61년생 사소한 오해가 분란을 만든다. 73년생 언행을 조심하면 낭패가 없다. 85년생 재물 운이 들어온다.	未	43년생 작은 병이 큰 병 된다. 55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 주지는 않는다. 67년생 싱글은 새로운 운명을 만난다. 79년생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낸다.
寅	50년생 계획이 어긋나고 돌발사고가 생긴다. 62년생 어떻게든 시작만 하면 잘 된다. 74년생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86년생 표정관리를 잘 해야 한다.	申	44년생 감당하지 못할 일은 벌이지 말라. 56년생 일과 가정 모두 지켜야 한다. 68년생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길하다. 80년생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卯	51년생 집안의 화복은 삶의 에너지가 된다. 63년생 매도 먼저 맞는 편이 낫다. 75년생 이기려 하지 말고 공존을 모색해 보라. 87년생 연인 간에 갈등이 있다.	酉	45년생 반가운 소식이 있겠다. 57년생 고난은 극복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69년생 큰 뜻을 품고 세상과 맞서 싸워라. 81년생 선남선녀가 만나는 길일이다.
辰	52년생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다. 64년생 최선을 다했다면 조용히 결과를 기다려 보자. 76년생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88년생 번민과 불안이 가득하다.	戌	46년생 처음에는 손해이지만 점차 이익이 나겠다. 58년생 중용을 지켜야 한다. 70년생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쓴 배이다. 82년생 믿고 기다리면 얻을 것이다.
巳	41년생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지 말라. 53년생 재수가 없고 마음이 불안하다. 65년생 먼저 가족의 지지부터 받아야 한다. 77년생 몸이 아프고 기분도 나쁘다.	亥	47년생 곧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니 서둘지 말라. 59년생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71년생 실수만 없으면 이길 수 있다. 83년생 적당히 선에서 타협하라.